

#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노동소설 완성도 높아졌다 / 현장 출신 작가들 장편소설 잇따라 발표 / 80년대 '운동수단' 넘어 '작품으로서의 문학' 접근 / 사회·민족문제 등 시대상 그려낼 역량 축적 평가 (일간스포츠 4월27일 김병훈기자)
- 교양도서로 '불교서적' 자리잡는다 / 教理 등 쉽게 풀이...독자층 넓혀 / 禪詩·동화 등 종류 다양...판매 꾸준히 증가(중앙경제신문 4월27일 김용선기자)
- 청소년의 달 5월...마음양식 좋은 책과 함께 / 간행물윤리위원회·교보문고 공동 '필독서 전시회' / 문학·철학 등 8백46종 / 읽어야 할 도서목록 분야별 정리·배포도(매일경제신문 4월27일 김경자기자)
- 출판계도 "제3의 물결" / -山단지에 현대화 청사진 / 제작서 유통까지 탈바꿈 시도(경향신문 4월28일 이상문기자)
- 청소년의 달, 서점마다 행사 다채 / 교보·종로서적 등 도서특설코너개설·권장도서목록발간 / 만화가 초청 그림컷 배부도(경향신문 4월28일)
- 「國家學」 논의 다시 활발...서적 잇단 출간 / 「국가권력의 이념사」「일반국가학」「국가이론의 제조명」 등 / 각론탈피 총체적 국가이론 제시 특징(세계일보 4월28일 신민형기자)
- 한국출판연구소「출판연구」 창간 / 반년간 간행...출판관련 학술·조사·개발 등의 연구 체계적으로 담아 / 창간호 특집 「한국출판의 연구와 교육」「한국 글자꼴 기초연구 등(중앙경제신문 4월28일)
- 어린이 겨냥 출판물 쏟아져 / 유아그림서 성교육동화까지 1백50여종 / 서점 특설매장 설치...풍선·학용품 등 선물(국민일보 4월30일 권혁종기자)
- 기업가傳記 많이 읽힌다 / 「人生歷程 재미있어」...직장인에 인기 / 「아이아코카」 등 20여종...꾸준히 팔려 / 「노력·모험이 성공의 열쇠」 공통내용(서울경제신문 4월30일)

- |   |  |
|---|--|
| <p>신정섭기자)</p> <p>● 成長기록물 출판붐 / 幼~青年期 경험 그대로 전해 / 세대단절 위기감...각계 공동집필도(한국일보 5월1일 서화숙기자)</p> <p>● 북한출판 「東醫學사전」 새로 펴냈다 / 까치社서 우리 실정맞게 고쳐 / 전통민간요법 체계화 / 2만4천여 항목 그림 곁들여 소개 / 최초의 韓醫學백과 용어비교도(한국일보 5월1일 서화숙기자)</p> <p>● 기초학문도서, 古典번역 활성화 시급 / 거의 모든 기초학문 原書에 의존 / 일부 번역본도 日本책 重譯 등 내용부실 / 번역도 研究적인 정·재정지원 등 필요(중앙경제신문 5월1일 김용선기자)</p> <p>● 쉬운 佛教책출간 활발 / 「한국불교에 뛰운 話頭」「바웃드하 불교」「업사상」 등 / 동화책 청소년 입문서 등 종류 많아 / 翻譯書출고 국내創作物 크게 늘어(동아일보 5월1일)</p> <p>● 화제의 출판인...도서출판 견지사 金耆煥사장 / 20년째 아동도서만 출판...「良書선택 부모·교사가 도와줘야」(동아일보 5월1일 양영채기자)</p> <p>● 월간 「北方동향」 창간호 발행 / 漢大 中蘇研·德山정치경제연구소서 / 「人民日報」 등 요약 자료 120여종 실어 / 사회주의의 실상의 객관적 照明에 기여(서울신문 5월1일)</p> <p>● 20~30대 직장인 독서량 국민 평균의 6배로 으뜸 / 「시대평론」 7백명 조사(연합통신 5월1일)</p> <p>● 새 철학동화·과학그림책 나와 / 「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」 기독교 신앙 바탕 사회문제 알게 / 「초롱이의 걸음마 자연공부」 매권 구체적 의문 한가지씩 풀어(한국일보 5월2일 서화숙기자)</p> <p>● 「사회과학 도서」 출판 사양길 / 80년대 비해 시장규모 30% 정도 축소 / 중산층, 급진·전투적 이론에 염증...독자 이탈 / 문학·청소년교양서 폐내 새로운 활로 모색(서울신문 5월2일 임영숙기자)</p> <p>● 부처말씀·慈悲 글로 알린다 / 佛教교양서 출간 본격화 / 핵심사상 풀이서 당면문제까지 다뤄 / 필자부족...주로 외국학자연구서 번역(내외 경제신문 5월2일 남진우기자)</p> <p>● 「재편집 東醫學事典」 출판 / 북한 「韓醫學」 연구성과 우리실정에 맞게 체계적 결집 / 원본보다 1백85항목 더 많은 2만4천5백41개 항목 수록 (한국경제신문 5월2일)</p> | <p>● 佛教동화집 釋誕日맞아 출간 / 고려원미디어서 「룸비니 불교 동화 전집」 나와 / 창작·설화·고승이야기 등 담아 / 어린이에 자비사상 쉽게 전달(중앙경제신문 5월2일 박해현기자)</p> <p>● 이동도서, 商術에 놀아난다 / 과기 공포동화, 외설 연애소설, 저속한 명랑동화... / 모두 베스트셀러 "심각" / 말장난 일관...교육적 내용 찾기 힘들어(조선일보 5월3일)</p> <p>● 어린이 「명랑도서」 문제점 많다 / 거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내용 / 비어·속어·남발...심성 해칠우려 / 베스트셀러 상위권차지...무분별한 선호 / 부모 먼저 읽은 후 자녀에 권하도록(서울경제신문 5월3일 신정섭기자)</p> <p>● 전국사서협회 결성에 문교·문화 부 긴장 / 2일 발기인대회...「도서관이 관문제에 주체적으로 나서겠다」 / 문교부에선 "집단행위" 해고 으름장 (한국일보 5월4일 최성자기자)</p> <p>● 『時代이품』 담은 詩集출간 많아 / 「탄광마을 아이들」「철쭉꽃 연붉은 사랑」 등 참교육 5·18광주 역사고뇌 증언(매일경제신문 5월4일 김병재기자)</p> <p>● 참신한 아동도서 "눈길" / 어린이 날 맞아 공산권동화·성교육도서 등 선보여 / 중국현대동화·건강한 성이야기·새 위인전 등 / 과학·철학도 쉽고 흥미있게...아이디어 경쟁 (일간스포츠 5월4일 이건기자)</p> <p>● 아동문학 상업주의에 찌들고 있다 / 인기편승한 性교육동화 등만 "불티" / 협회난립으로 低質문학가 양산 부작용도(중앙일보 5월4일 이건기자)</p> <p>● 서점가 휩쓰는 「페미니즘文學」 / 90년대를 사는 새로운 여성상 제시 / 소설 베스트셀러 계속 上位유지 / 여대생·직장여성에 폭발적 인기 (서울경제신문 5월4일 신정섭기자)</p> <p>● 꿈나무에 좋은 책을... / 사회단체·출판계 캠페인 벌여 / 권장도서 목록집 배포 등 활발 / 출협 국제그림동화원회전 마련 / "재미있고 읽기 쉬우며 감동줘야"(내외 경제신문 5월4일 성진선기자)</p> <p>● 어린이讀書 외국작품 편중·삼성생명·국립중앙박물관 국민학생 대상 조사결과 / 85%가 童話·위인전 선호 / 「국내명작 좋아한다」 18%에 불과(경향신문 5월5일 이상문기자)</p> <p>● 만화, '건전한 비평' 아쉽다 / 만화·평론가들 "윤리회복" 앞장을 /</p> <p>● '평론' 지면제공 등 지원 확대로 활성화를 / "저급하다" 회피 말고 정면으로 부딪쳐야(스포츠서울 5월5일 박찬기자)</p> <p>● 「밀리언셀러」 꾸준히 늘고 있다 / 소설류 대부분...大河物은 완간후 수요급증 특징 / '장길산' 2백50만부로 최고...지금도 월 1만부씩 / 수기집 '노란손수건'도 청소년들에 1백만부(국민일보 5월7일 권혁종기자)</p> <p>● 관심 높은 「成功비결」...요즘 출판 경향 / 복잡한 生態 따라 處世書도 전문화·생활인·직장인·리더·先賢의 철학 등 다양 / 세일즈맨 時代...의 中기법 구체적 소개도(서울경제신문 5월7일 신정섭기자)</p> <p>● 창간 美術 잡지 해외정보 실기경쟁 / 내년 미술시장 완전개방 영향 / 주로 유명작품 경매·박람회 소식 다뤄 / 지면 50~80% 할애...기존誌도 영역 확대(세계일보 5월7일 박정진기자)</p> <p>● 公害예방 「구체정보」 아쉽다 / 전문출판사 늘어도 「실천지침서」 없어 / 대부분 政策·이론 소개 / 생활 속 환경정보 존방법 제시 등 절실 (한국일보 5월8일 서화숙기자)</p> <p>● 도서판電算化 5% 불과 / 玄圭變교수 정보자동화 심포지엄서 지적 / 「公共부문」 계획도 없어 / 전담부서·표준화 시급(한국경제신문 5월8일 이정환기자)</p> <p>● 아동도서·국어사전 새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면 / 「읍니다」「상치」 표기 등 옛책 그대로 팔아 / 한글 잘못 배워 청소년 교육 혼란 우려 / 독자 항의에도 출판사 資金難들어 수정꺼려(동아일보 5월8일 양영채기자)</p> <p>● 90년대 詩 활력 예고 새 목소리 들 / 깊은 시인들 처녀시집 잇단 발표 / 직업군인이 본 분단현실 그린 「우리시대의 자화상」 / 건축현장 원치공의 노동일기 「작업일지」 등 (한겨레신문 5월8일 고종석기자)</p> <p>● 노동문학 大型화되고 있다 / 「파업」 등 장편 小說·長詩 줄이어 / 作家 대부분이 학생운동권 출신 / 현장 성과 예술성의 조화가 과제(중앙경제신문 5월9일 박해현기자)</p> <p>● 광주 관련 시·소설집 잇따라 출간 / 「5·18」 10주년 맞아 / 당시 민중항쟁·비극의 극복과정 묘사 / 대묘작 묶음도...문학적 형상화 한눈에(세계일보 5월9일 양현석기자)</p> <p>● 사랑탐구 外國소설 2편 / 사강의 「황금의 고삐」 치밀한 심리분석으로 풍요의 비극 표현 / 벼거의 「마지막</p> |
|---|--|

사랑을 위하여」 소시민 욕망 통해 소망의 중요성 강조(내외경제신문 5월9일)

● 新銳 여성작가 "반짝반짝" / 20~30대 10여명 잇따라 力作 발표 / 날카로운 시각·감수성 조화 / 정치 아·공지영 계급문제 집중조명 / 김형경·신경숙 상징적 수법 돋보여(내외경제신문 5월9일 남진우기자)

●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書籍 인기 / 「예방과 치료」 등 2권...한달만에 재판 / 自己複製기능 갖춰 빠른 속도로 감염 / "새 바이러스프로 제작 가능" 일부선 우려(서울신문 5월9일 임영숙기자)

● "枕詞도 한국어" 日문학계 또 충격 / 李寧熙씨 제2탄 「枕詞의 비밀」 베스트셀러 / 萬葉集 중 日학자 "뜻없다" 방치한 말 풀이 / 春園도 생전에 똑같이 해석한 메모남겨 / NYT 紙 등 세계언론도 관심(한국일보 5월10일 정훈기자)

● 쉽게 풀어쓴 불교책 출간 잇따라 / 「한글세대를 위한 불교」 아름다운 문체로 사유의 진수보여 / 「인간 본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」 대장경 등 바탕 부처일대기 재조명 / 다드마총서·대원정사 입문서 시리즈도 눈길(한겨레신문 5월10일 조선희기자)

● 北韓文단에 "개방바람" / 양심작가들 복권 「主體文學」 벗어나 / 日本 한국문학연구가 오무라 마쓰오 교수 「한길문학」 6월호에 기고 / 西歐文學도 수용...새 「세계문학선집」 발간(중앙일보 5월11일)

● "우리文學에 「비트」 출현 조짐" / 金聖坤 교수, 문학정신 5월호에 산업사회병폐 문학적 해체경향 지적 / 文明비판·저항으로 疆外와 좌절 표현 / 황지우詩 고정원·최수철小說 등서 엿보여(경향신문 5월10일 김동률기자)

● 기념논총 教材·學術書로 펴낸다 / 자연과학 위주서 전분야로 확산 / 資金·原稿難 겪는 출판사도 환영(중앙경제신문 5월11일 김용선기자)

● 一山 출판단지 건설 관련 단체 참여 쇄도 / 인쇄문화협회·사진제판협동조합·한국잡지협회 출판관련 산업의 참여신청 줄이어 / 「한국출판판매주식회사」 내달 법인 등록(중앙경제신문 5월11일)